

이기명(노무현재단 고문1)) 1차 구술

1. 구술자: 이기명
2. 면담자: 정구철
3. 촬영자: 이대희(박성수일 수 있음?)
4. 구술일자: 2010년 6월 1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21분 4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조선의원 노무현 후원회장의 후원회 이야기

구술자 : 그 뭐,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아, 인연이라는 게 묘하구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하고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드라마를 썼고 서울사람이고, 대통령은 부산사람이고 나하고 열 살 차이가 나고. 나하고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에 맞춰서 나하고 만나게 되느냐, 이게 무슨 조화냐, 어? 요즘 운명이란 말을 많이들 쓰는데. 참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아...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이 기쁨과 고통 이런 것이 없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청문회 스타²⁾).

면담자 : 청문회 스타면 청문회 이후에 처음 보시게 되는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기 때문에 테레비(TV) 보고 그러면은, 그 뭘니까 장세동³⁾이 야단치는. 얼마나 통쾌해요. 그래서 ‘참 좋은 정치인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은 국민들 밑바닥에 전부 깔려 있는 정서거든. 그런데 그야말로 그때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난 분이 바로 우리 대통령 아니에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 분은 정치가[이고], 우리가 특별히 뭐 [관계가] 없잖아요. 그 분이 또 문화 계통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노조 애들을, 저는 직원은 아니지만은 작가실이 오(5)층에 있는데 그때 한참 구십(90)년, 구십(90)년 민주화 투쟁 때 가열차게 케이비에스(KBS) 노조

1) 2016 구술 공개 당시 현직. 방송작가이며 1990년 조선의원 노무현의 후원회를 결성하고 15년간 운영했다. 정치인 노무현의 영원한 후원회장이라 불린다.

2) 조선의원 노무현은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988년 11월 시작된 이른바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정권의 비리와 정경유착 관계를 파헤쳐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다. 초기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를 통해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고 직접 기록하고 있다.

3) 전두환 정권 당시 경호실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냈으며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애들이 붙었거든요. 그때 서기원이기 사장인데.⁴⁾

면담자 : 서기원 사장 퇴진하면서 이제

구술자 : 그럴지, 붙었는데. 하여튼 전경 애들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지켰으니까. 고게 사라지고 노조활동이 아주 왕성했는데 하루는 내가 노조 애들을 너무 예뻐하고 그러니까 개네들이 무슨 일 있으면 나하고 의논도 하고. 와서 ‘선생님, 선생님’ 하고. 어느 날 노조 애가 오더니 ‘선생님 강연이나 들으러 가시죠.’ ‘야, 무슨 강연을 들어?’ 그랬더니 노무현 의원이 우리 노조 스튜디오에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아휴, 뭐 허면 허지.’ ‘아이,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그래 갔어요. 호기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듣는데, 와. 텔레비(TV) 청문회, 텔레비(TV)를 통해서 듣는 것과 직접 육성을 듣는 것과 아주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때 주로 한 얘기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 주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뭐 조중동⁵⁾ 얘기지. 언론이 이렇게 권력화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노조 애들 모여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는 머리 하얀 놈이 혼자 앉아 있잖아요, 다 젊은 애들인데. 나한테 자꾸 눈을 주시더라고. 나는 듣기만 하고.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박수 막 받고 노조 간부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더니 내 앞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더니 ‘노무현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저는 방송작가 이기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작가세요? 작가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는 간부가, 케이비에스(KBS) 간부가 ‘어떤 놈이 노무현이 강연 듣나’ 그거 감시하러 온 줄 알았어요. [웃음]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그때 따라온 비서관이 조상훈, 이광재⁶⁾가 있었거든. 그러구 거기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나, 노무현 의원이 사퇴서⁷⁾를 냈어요. 의원직 사퇴.

4) 1988 5월 20일 KBS 노조가 결성되는 등 방송민주화운동이 구체화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은 1990년 4월 노조에 협조적이었던 첫 민선 사장 서영훈을 퇴진시키고 서울신문 사장 서기원을 새 사장에 임명했다. KBS 노조는 서기원 사장 출근 저지 투쟁으로 맞섰다. 노태우 정권은 4월 12일 경찰 병력 900여 명을 투입해 사장 출근을 저지하던 노조원 117명을 연행했다. KBS 노조와 사원들은 무기한 제작 거부로 돌입했다. 4월 30일 또다시 3,000여명의 경찰이 KBS에 들어가 농성 중인 사원 333명 전원을 연행했고 저항은 MBC와 CBS 노조의 연대 제작 거부로 확산됐다. 이후 방송 정상화와 서기원 사장 퇴진 요구 100만인 서명운동 등이 이어졌으나 KBS 노조의 서기원 사장 취임 저지는 실패로 끝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참고

5)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묶어서 일컫는 줄임말

6) 조상훈과 이광재는 당시 조선의원 노무현의 보좌관이었다. 이광재는 뒤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제 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35대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7) 노무현 의원은 1989년 3월 19일 김재순 당시 국회의장 앞으로 친필로 쓴 ‘국회의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표지를 포함해 모두 8장으로 되어있는 사임서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조선의원 노무현의 고민, 분노와 절망이 깊게 배어있다. 사임서와 관련내용은 노무현사료관의 사료이야기 ‘1989년 3월 정부 여당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분노, 자필로 쓴 사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주위의 설득으로 17일 만에 사퇴를 철회했다. 노무현 의원과 첫 만남, 의원직 사퇴는 시간 흐름이 뒤바뀌어 있는데 이는 구술자 기억의 착오로 보인다. 참고로 노무현 의원은 3당 합당 이후인 1990년 7월 13일 당시 민자당의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날치기 처리

사퇴서 내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속에서 [화가] 치밀더라고. ‘저건 무책임한 거다. 저 그만두면 좋아할 놈이 누구냐’ 그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바쁜 작가생활 하는 가운데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내가 다시 발견을 했어, 뒤지고 그러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 편지를 내가 갖다 줄 수도 없고, [편지로] 부쳤지. 그걸 광재가 봤는지 상훈이가 봤는지 노 의원한테 이거 그때 한번 케이비에스(KBS)에서 뵈던 작가께서 쓴 편지라고 [전해드렸는데] 심각하게 한참 보더래요. 그러더니 ‘음, 알았어’ 그러고 나한테 아무 소식도 없고, 얼마 후에 의원직 복귀했다는 말을 [들었죠]. 의원직을 복귀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론 ‘잘됐다, 그래야지 당연히. 기분 나쁘다고 사퇴하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할 사람 누가 있나.’ 하여튼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러고 얼마 후에 광재하고 상훈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만났나, 케이비에스(KBS) 뒤에 다방에서 만났나. 나한테 ‘후원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웃음]

면담자 : 갑자기 얼떨떨하셨겠네요.

구술자 : 황당하지. 아니 평생을 글만 쓰던 농한테 무슨 후원회냐 그래서 ‘이 사람들아 나는 글 쓰는 작가야, 작가라는 게 무슨 돈이 있나. 정치인 후원회면 돈 있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냥 작가야’ 그랬더니 광재가 ‘그러시니까 해주셔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저희 의원 후원회장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럴잖아, [노 의원이] 학맥이 있어 인맥이 있어. 가난한 농민의 아들, 상고밖에 안 나왔고, 직장 생활도 안했고, 판사 일(1)년 하다가 그만 뒀고. ‘선생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각 좀 해보고.’ 집에 가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은 ‘아버지 하세요.’ 개네들은 다 알잖아 노무현이가 누군지.

면담자 : 사모님 생각이 어떻게.

구술자 : 집사람은 ‘여보, 무슨 당신이 정치인 후원회장을 하느냐’ 고. ‘당신이 돈이 있소 뭐가 있소. 원고나 잘 써서 돈이나 좀 벌어 와요.’ 그때 내가 돈을 잘 버는 작가였거든. 근데 이상하게 한번 해봤으면,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정치과 출신이어서 그러냐? 장난처럼 ‘그럼 우리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거수로 투표를 딱 했는데 내가 이(2)남 일(1)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 세 표, 나 한 표, 사

항의하며 이해찬 의원, 이철 의원과 함께 두 번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며칠간 잠적하는 일은 없었다.

(4)대 일(1)로 마누라가 졌지.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이겼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걱정하지마라. 내가 후원회장을 한다고 살림 때려 치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냥 글 쓰면서 이름만 걸 어놓는 거야. 걱정 마’ 그리고 후원회장을 한 거예요. [웃음]

노무현 의원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시드나 [묻는데] 맨 처음에 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노무현 의원 그게 두 번째 만나는 거야 말하자면은. 처음 만나고 우리 광재 [만나서] 노무현 후원회 만든다는 데 합의를 하고 [노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딱 말하는 소리가 ‘아휴, 후원회는 무슨 후원회예요.’ 얼마나 황당해. 황당하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재나 지들이 [설득]해서… 근데 그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 딴 사람들 같으면 어쨌든 내가 유권자고, 방송작가고, 서울 토박이고, 집안 번듯하고. 그러면 내가 후원회장 하면은 손해날 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정색을 하고 ‘아유, 후원회는 무슨 후원회세요.’ 그런데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정치할 사람 아닙니다.’ [노 의원이] ‘아유, 압니다. 저도 <김삿갓 방랑기>⁸⁾도 듣고 다 했습니다.’ ‘노무현 의원, 사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좋다.’ 근데 사람이 그럴잖아요.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거든. 아마 내가 말하는 게 진정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후원회 하게 된 거지. 근데 뭐 자기 복안(腹案)이나 이런 거 없어, 모든 게 그냥. 원래 그럴잖아요, 그 양반이. ‘아유,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지.

면담자 : 특별하게 후원회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던가].

구술자 : 그런 거 없고. 전혀 없고. 일체 나한테 뭐 일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속으로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닌데 남들하고는 그렇게 달라. 우리 노 의원이 그럴잖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는데 그 진정이 고스란히 뚫아오거든.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사십(40)대에 얼마나 젊었을 때야.

그리고 후원회를 만들었으니깐 후원회원들을 모아야 하잖아.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내가 신문에다 ‘후원회원 모집합니다’ 할 수도 없고 내 친구래야 전부 글쟁이들. 그야말로 난감하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참, 방법이라는 게 골몰했는데 조상훈이 그러더라구. ‘저 선

8) < 북한방랑기>는 KBS 1라디오에서 1964년 5월 시작되어 기간으로 30년 이상, 횟수로 총 11,000회 이상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이다. 북한 동포의 생활상을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끝날 무렵에는 풍자 시조를 곁들였다. 남북 관계의 영향으로 <김삿갓 방랑기>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생님 우리 노 의원한테 편지’ 일종의 팬레터(fan letter)지 ‘엄청 많이 와있어요. 다 저희들이 모아놨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꼭 찾아, 꼭 찾아 상자에. 그게 ‘청문회 스타 노무현 의원님’ [앞으로] 온 거야. 그 당시에 국회로 오는 편지의 한 팔십 프로(80%)는 노무현 의원실로 왔다는 믿기지 않는 소문. 그래가지고 알바(Arbeit) 학생들 모아서 그걸 전부 정리를 했어. 주소를 정리해가지고 우송을 했지. ‘이러저러해서 후원회를 만듭니다. 후원회에 가입해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노무현 의원을 도와서 우리나라 정치를 좋게 만들자.’ 아 근데 탁 보내고 나서 후원회 가입하겠다는 사람들 막 몰려오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나요. [웃음] 노무현 의원한테 ‘이렇게 가입한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했더니] 씨익 웃으면서 ‘그래요?’ 그만이야. [웃음]

면담자 : 그리고 그만이셨어요?

구술자 : 그만이야. [웃음] 근데 그게 또 좋더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저 뒤에,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사진이 있는 저게 바로 흥사단⁹⁾ 강당이거든요, 대학로에 있는 거. 동송동. 후원회 준비모임을 거기서 했지.

면담자 : 정식 발족식은 아니고

구술자 : 말하자면 준비모임인데 그게 바로 발족식이예요, 발족식. 그때 뭐 사람들 꽤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전부 우편으로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 그때 저기 보이는 후원회 결성식 붓글씨 쓰신 분이 왜, 김구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안두희 응징하고 그런 권중희¹⁰⁾ 선생이 쓰신 글이죠. 그래가지고 후원회 행사하고, 그러고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후원회 사무실도 여의도에 만들고.

면담자 : 여의도 어디쯤에.

구술자 : 케이비에스(KBS) 별관, 신정빌딩 삼(3)층인가 사(4)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거기 삼(3)층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회원들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내 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노무현 의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절대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하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소액다수예요. 내가 후원회장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몰라요. 전부 후원금으로 오니까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동기생들, 변호사들이 몇 분 있어요.

면담자 : 사시 동기생이나

9) 1913 도산 안창호가 창립한 민족운동단체로 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10) 사회운동가(1936-2007)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응징하고 살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주력했다.

구술자 : 그렇죠. 그 분들 내가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고. 박 무슨 변호사 내가 한 번 딱 찾아간 적이 있어, 한번. 그리고 딴 사람들은 절대 난 찾아가지 않았어요. 전화나 드리고 이랬는데.

근데 소액다수가 그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 그것이 노무현 의원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신바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보를 냈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제호 저게, 지금 사람 사는 세상 저기 있는 그거, 그 판이 그냥 바로…

면담자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거 왜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지금 우리 신영복 선생¹¹⁾이 쓴 ‘사람 사는 세상’ 그거. 그니깐 글씨도 좋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 사는 세상>에 내가 글도 쓰고, 글도 받고. 유명인들이 작가지 주로. 작가들은 소신껏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의도 백화점 바로 앞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지하 카페에서 행사도 하고. ‘후원의 밤’

면담자 : 결성식도 있었고, 후원의 밤도 있었고

구술자 : 그럼. 결성식 한참 후에 후원의 밤¹²⁾이 있었지. 그때 노래들도 부르고, 현장에서 모금도 하고 그랬죠.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정치인들 [가운데] 법적으로 등록된 최초의 후원회래요, 우리 노무현 후원회가. 남들이 후원회는 있지만 이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우리 동창 국회의원인데 돈 좀 모아주자’ 하면은 그게 무슨 후원회다 [했고].

면담자 : 등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해온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는 국회에다 후원회 등록을 하는 건가요?

구술자 : 선관위에다 아마 했나. 선관위에다 [등록]한 최초의 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36. 서울 출생

동국대학교 정치학 학사

11) 대학교수. 노무현과 부산상고 선후배 사이로 대통령 재임기는 물론 퇴임 후까지 인연이 이어졌다.

12) 조선의원 노무현의 비서였던 조상훈이 기증한 후원회 밤 행사 후 기념사진에 1991년 4월 12일로 찍혀있다. 노무현사료관에 공개되어있다. 등록번호 35909

KBS 라디오 드라마 ‘김삿갓 북한방랑기’ 집필

- 1990. 노무현후원회 회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 2002.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문화 고문
- 2003. 문화네트워크 회장
국민참여연대 상임고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상임고문
이광재 강원지사 후원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
서프라이즈, 진실의 길 회장(2016년 현재)
팩트TV 논설위원장(2016년 현재)
- 2009. - 노무현재단 고문(2016년 현재)

노무현의 영원한 후원회장으로 불린다. KBS 작가실장이자 라디오 드라마 ‘김삿갓의 북한 방랑기’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청문회 스타’로 부상한 초선의원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대통령 취임 때까지 15년간 후원회장을 맡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노무현의 역정을 변함없이 응원했다. 취임 첫해인 2003년 측근비리 의혹에 휘말리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의 대상은 선생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며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기명 선생님께 올리는 글’을 쓰기도 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이기명의 착한 국민되기 힘들고 서러워> 등의 저서가 있다.